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	
		배포일자	2024년 6월 25일(화) 총 5매		
담당 부서	감염병관리과	담당자	• 감염병 예방팀장 박은영 ☎440-7841 • 담당자 최유미 ☎440-7849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,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게 최선!
-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-

인천광역시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휴가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
SFTS는 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며,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,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부터 발생이 증가한다.

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,89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, 그 중 355명이 사망해 18.7%의 치명률을 보였다.

※ 2024.1.1.~ 5.10 : 4명 발생(3명 치료완료, 1명 사망)

SFTS는 치명률이 높고,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.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, 긴 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, 야외활동 후 2주 이

내 고열(38℃ 이상), 소화기 증상(오심·구토·설사·식욕부진 등)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.

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휴가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”며 “특히,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인 만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<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>

○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

-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,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* 갖추입기
* 밝은 색 긴소매 옷, 모자, 목수건, 양말, 장갑 등
-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
-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

○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

- 풀밭에 앉을 때 돛자리 사용하기,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,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
-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,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한 주기적 사용

○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

-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
-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(검은 딱지 등)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
-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

<붙임>

1. SFTS 개요
2.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
3.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련 카드뉴스

붙임1

SFTS 개요

정 의	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(bandavirus dabiense) 감염에 의한 질환
질병 분류	제3급 법정감염병
병원체	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(<i>Phenuiviridae</i> 과 <i>Bandavirus</i> 속에 속함)
매개체	주요매개체: 작은소피참진드기(<i>Haemaphysalis longicornis</i>), 개피참진드기(<i>Hamaphysalis flava</i>), 뭇뚝참진드기(<i>Amblyomma testudinarium</i>), 일본참진드기(<i>Ixodes nipponensis</i>) 등
감염원	<i>Dabie bandavirus</i>
감염경로	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사람간 전파 보고: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·간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
잠복기	5~14일(중앙값 9일)
호발시기	4월~11월
호발대상	주로 50대 이상
임상증상	주증상은 38℃ 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(오심, 구토, 설사, 식욕부진 등) 출혈성 소인,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- 혈소판·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(혈뇨, 혈변 등) 발생 - 피로감, 근육통, 말어눌·경련·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-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주요 검사소견 -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, (혈청효소이상) AST, ALT, LDH, CK 상승
진 단	□ 검체(혈액)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분리 □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□ 검체(혈액)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□ 검체(혈액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
치명률	12~47% 정도 (2013~2023년 국내 누적치명률 18.7%)
치 료	□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
환자관리	□ 환자 관리: 격리 필요 없음 - 단, 혈액 및 체액에 의해서는 전파 될 수 있으므로 의료종사자는 예방 원칙 준수: 환자 접촉 시 의료종사자는 표준주의지침과 비말 및 접촉주의 지침을 준수 □ 접촉자 관리: 격리 필요 없음
예 방	□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□ 야외활동 시 -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, 눕지 않기,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- 돗자리 사용,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,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□ 야외활동 후 - 옷을 털고 세탁하기, 샤워·목욕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□ 환자/감염동물의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·간접적 노출 주의

붙임2

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

※ www.kdca.go.kr → 알림·자료 → 홍보자료에서 검색가능

3GO! 진드기는 흔적을 남깁니다!

관리 1 증상 살펴보고!

고열/오한

두통

근육통

오심/구토/설사

관리 2 물린 흔적 찾아보고!

물린 자국

(주요 물린 부위)

관리 3 빨리 치료하고!

진드기 매개 감염병 어떤?

-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.
*보르레리�시스,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(SFTS), 지카열 등
- 주로 한복작업 등 농작업을 하거나, 들소, 나뭇재위 등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감염위험이 있습니다.
- 발열, 근육통, 설사 등 가벼운 증상과 유사하므로 빠른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 진료 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환자 5명 중 1명 사망

(2015-2022년, SFTS 기준)

아프면 의료기관 방문

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!!

질병관리청

진드기 매개 감염병!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

예방 1 옷 제대로 입고

목수건, 장갑, 모자, 장화, 덧신, 끈매지, 목에 간양말

예방 2 기피제 뿌리고

기피제 X, 기피제 O

[진드기 기피제 무효 성분 및 함량]

- 디페테르알데하이드(2022년 7~10% 함유) : 함양도기, 함양도기
- DEET(2022년 7~10% 함유) : 함양도기, 함양도기
- 피레트린 : 함양도기, 함양도기, 함양도기, 함양도기
- 피레트린 : 함양도기, 함양도기, 함양도기, 함양도기

진드기 기피제 사용 시 주의사항

예방 3 풀숲 피하고

예방 4 씻고, 빨래하고

씻고

천신 샤워 및 진드기 제거

빨래하고

작업복 분리 세탁하기

붙임3

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련 카드뉴스

※ www.kdca.go.kr → 알림·자료 → 홍보자료에서 검색가능

